

UC·CSU, 내년 입시에서 SAT/ACT 점수 제출 요구 않는다

UC계와 CSU계 대학들이 내년도 지원자들에게 대입 표준시험인 SAT/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올 겨울학기 및 봄학기, 여름학기 수업 성적을 알파벳 점수로 제출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올가을 UC계와 CSU계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2학기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입시 휴교 기간이 길어지고 SAT/ACT 시험 시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커뮤니티칼리지를 통한 편입생 경우 3학년으로 편입 시 '통과/실패(Pass/No Pass)'로 적힌 학점을 학기당 최소 60유닛(쿼터일 경우 90유닛)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유예시켰다. 현재 각 커뮤니티칼리지도 휴교를 시작한 후 학생들의 성적을 A, B, C 등 알파벳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통과/실패' 또는 '인정/불인정(Credit/No Credit)'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UC계와 CSU계 대학들은 SAT/ACT 점수를 입학 전형에서 활용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GPA)의 중요성

은 더욱 커졌다. UC계와 CSU계 대학들은 입학 사정 시 학교 성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물론 SAT, ACT 점수,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액티비티 등도 사정의 요소이지만 GPA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SAT, ACT 점수가 조금 낮아도 다른 입학 사정 요소들이 잘 준비돼 있으면 합격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내년도 입학 사정에서 SAT,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서 그간 SAT, ACT 점수가 기대보다 낮아 고민하던 학생들에게는 UC계와 CSU계 대학을 지원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

하지만 UC는 이미 시험을 보았거나 혹은 8월 이후 불합격자들이 지원서에 시험성적을 기입하는 것은 인정할 것이며 이는 장학금 심사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입시전문가는 "이는 지원요건에서는 면제하지만 점수를 기입하면 참고한다는 의미"라며 "점



수를 제출하면 입시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AT, ACT 시험은 곧 재개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ACT는 6월 시험을, SAT는 8월에 시험을 재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에서 SAT-ACT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도 SAT,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다. 현재 약 1,000여 개 대학들은 SAT,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대학들은 시간이 가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SAT, ACT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SAT,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학들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이들 점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SAT, ACT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 리스트는 www.Faire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도전 대학 편입 ... GPA가 열쇠

많은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학업에 소홀한 관계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경우 편입을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미국 대학 편입은 학년별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 3학년에 편입을 한다. 계절별로는 가을학기에 편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봄이나 여름학기에도 편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보통 가을학기로 편입을 하려면 편입 원서 마감은 2-3월인 경우가 많다. 하버드, 예일 등의 편입 마감 시기는 3월 1일이고 다른 대학들의 경우 4, 5월까지 이어진다.

만일 봄 학기로 편입을 하고자 한다면 보통 11월 1일이 마감일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10월 1일에 마감하는 대학도 있다. 만일 2021년 1월 학기에 새로

운 대학에서 편입해 공부하고자 한다면 2020년 11월 1일까지 편입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편입 원서 마감 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커뮤니티칼리지(CC)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편입 루트다. 이 경우 the Transfer Admission Guarantee (TAG) program, 즉 해당 주에 있는 CC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주의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각 대학과 CC 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CC를 다니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뒤 UC 중 6개의 캠퍼스로 편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TAG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ctap.universityofcalifornia.edu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TAG 프로그램은 UC뿐 아니라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통 편입학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는 대학교 2학년까지 교양과목을 CC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준학사 자격을 받는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편입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대입 표준 고사인 SAT 혹은 ACT 점수보다는 대학 재학 때 내신점수(GPA)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표준 고사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입학 보장을 받기 위해선 4.0만 점에 최소한 3.6점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좋은 GPA를 확보해야 한다.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Why 에세이다. 즉 자신이 왜 편입을 하려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편입 지원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의 대학에 대한 불평이 아닌 새로운 대학에 대한 자신의 꿈과 계획을 잘 설명해야 한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Implant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400

잇몸치료
~~\$600~~ → \$400

틀니
~~\$1200~~ → \$85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